EU에서 시작하는 중소기업 ESG

2026-01-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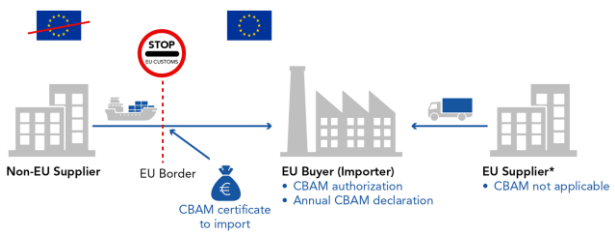
- 2026년 EU 내 상장 중소/중견 기업들, 2026 회계연도에 대한 ESG 데이터를 2027년에 의무 보고해야 함
- 하지만 2025년 2월, EU 집행위원회에서 Stop the clock 제안 채택되며 시행시기 일부 연장
- 2024년 1월, EFRAG(유럽재무/지속가능성보고자문그룹)는 중소/중견 기업들에 대한 ESG 보고 표준 초안 발표
  상장 SME(Small and Medium-sized Enterprises)는 ESRS LSME(Listed SMEs) 기준에 따라 의무화,
  비상장 SME는 VSME(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for non-listed SMEs) 기준에 따라 ESG 정보 공개를 권고
- 시행 시점에 대한 논의 계속되고 있지만, 지금 시점에서 중소/중견 기업들에 ESG 요구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 있음
-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가치사슬(Value Chain)의 ESG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,
  이는 협력업체들의 ESG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
- LSME & VSME = 고객사, 투자자 및 금융회사 등의 ESG 정보 요구를 표준화 한다는데 의의
- 우리나라 중소/중견 기업들이 기억해야 할 점
  ① 거래소 의무공시 보다 수출 및 거래/조달/금융에서 정확한 '데이터' 관점에서의 ESG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
  ② EU 등 글로벌 표준화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 공개 요구할 가능성, ESG 관련 최소 KPI 설정 및 달성 여부 중요
  ③ 표준화 된 항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비용 절감
  경쟁사보다 먼저 시행/안착할 경우 또 다른 경쟁력 될 수 있음
- 2026년 1월 공식 시행된 EU CBAM(탄소국경조정제도), 인증 절차에 대한 이행과 탄소 산정 = 유럽 수출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
- ESG, 비관세 장벽이자 시장에 대한 접근 허가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

ESRS LSME 핵심 구조

구분		핵심 내용
Section 1	일반 요구사항	- 가치사슬 캡(Value Chain Cap) - 중소/중견 기업에 과도한 정보 요구 못하도록 보호
Section 2	일반 공시	- 거버넌스, 전략, 위험/기회 등 기업 전반의 내용
Section 3	정책, 조치 및 목표	- ESG 관련 정책 및 목표
Section 4	환경	- 기후변화, 오염, 생물다양성, 순환경제 등 각종 환경 관련 주제
Section 5	사회	- 인력, 근로자, 지역사회, 소비자 등 각종 사회 관련 주제
Section 6	비즈니스 행동	- 기업 윤리, 부패 방지 등 거버넌스 관련

자료: EFRAG, SK증권

새로운 국경 장벽 역할 할 것으로 예상되는 EU CBAM



자료: The Conference Board, SK증권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(나승두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팀 담당자는 본인의 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당사는 자료 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투자판단 3단계(6개월 기준) 15%이상 > 매수 / -15%~15% > 중립 / -15%미만 > 매도